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5호 [루게 제2186호]

주제 101
(2012). 8
25
토요일
음력 7. 8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선군력사가 찬연히 비껴있고 온 나라에 감나무중대로 널리 알려진 중대의 군인들은 곁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스히 손저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감나무중대 군인들이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도도표시비를 돌아보시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어 교양실, 병실, 식당을 돌아보시였다.

병실로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갔는가고 물어주시였다.

웃단위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참가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원수님께서 중대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시며 너무도 서운하여 눈물을 흘릴 그들의 심정을 뜨겁게 헤아려주시였다.

교양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중대군인들이 찍은 기념사진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상한상의 기념사진마다에 어려웠던 잊지 못할 날들을 궁지에 넘쳐 말씀올리는 중대지휘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들이 체육복을 입고 찍은 기념사진에 시선을 보내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수영훈련을 진행하고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그날 중대군인들에게 식사까지 차려주시던 장군님께서 제 기쁨을 드시며 전진길에 오르신 사연을 후날에야 전해들었다고 말씀올리는 지휘관들의 목소리는 젓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나무중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감나무중대는 선군혁명명도사의 갈피에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로새겨진 중대, 그것으로 하여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중대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중대에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보 온 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대가 바뀌어도 중대의 정신과 전통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대에 어려웠던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교양실책상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었던 수십년전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리용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중대에 갖든 사적물들을 잘 보존리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쇠소리가 나게 준비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침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자리도 보아주시고 모포의 질도 가늠해보시였다.

세목장에 들리시어 역삼을 리용하는 한 중 및 목욕방법에 대해서도 들어주시였다.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일일량식공급규정장표를 가리키시며 그대로 공급되고있는가, 부족되는것은 없는가를 물어주시고 군인들에게 규정대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취사장에 들리시어 가독히 차려놓은 음식감중에 계가 있는것을 보시고 어디서 잡았는가, 가공은 어떻게 하여 먹이는가, 병사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일일창고의 매 칸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이만하면 살림살이를 잘한다고 하시면서 주둔지역의 도당위원회에서 중대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있는가를 물으시였다.

잘 도와주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이 놓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대에서 자체로 리용하고있는 소금밭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화력전지를 돌아보시면서 중대의 전투군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화력전지와 전투기술기재들, 방어축성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전투기술기재들에 대한 원성회복사업을 즐기차게 벌려 언제든지 멸적의 불을 뿜을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하시였다.

모든 군인들이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불굴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최고사령관과 동무들이 손을 잡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동부전선의 군인들을 믿으며 동부전선의 한계 초소를 지키고있는 녀성혁명가들인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초소길을 걸으며 지난해에 감을 얼마나 수확하였는가를 알아보시고 아직 많이 익지 않았는데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중대군인들은 합창 《조선청년행진곡》, 설화와 노래 《장군님과 우리 감나무중대》, 독창과 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6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3중창 《어머님의 이야기꽃이 필니다》, 어른금4명창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노래리곡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손공금3중주 《예뵈니》, 노래와 춤 《녀성해안포병의 노래》, 합창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등 다채로운 종류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연성과를 축

하시며 박수를 크게 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대군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원수님께서 저저마다 품에 안겨드는 군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힘들지 않는가, 평양에서 입대한 군인은 몇명인가도 물어주시며 그들의 근무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대의 모든 군인들이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대하여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원수님께서 앞으로 중대군인들이 싸움준비도 잘하고 예술소조활동도 잘하여 전군의 모범이 되라고 하시면서 적들이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있는데 맞게 고도의 전투적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원수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고 한눈이라도 기여한다면 무자비하게 수장해버리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여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병사들을 한명하명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느라 장시간 서 있어야 하시였지만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그의 품에 안겨 사진을 찍는 최상의 행복속에 울며 웃는 군인들의 모습으로 하여 감나무중대에서는 선군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혁명실화가 태어났다.

사진을 찍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대를 떠나있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마음에 걸리시어 꼭 다시 찾아와 사진을 찍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진행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라선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중국, 러시아, 스웨디에, 체코, 중국 타이베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110여개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전기 및 전자제품, 료진기, 정공업제품, 의약품 등이 출품되였다.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20일 라선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참가자들은 전시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호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과 라선시내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들, 출품자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있는 외국인들, 리엔바오전 청년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총령사와 박세슬라브 준비요청 청진주재 로씨야련방 총령사 각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이날 전시회개막과 관련한 연회가 있었다.

전시회기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무역회사들과 인사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 및 무역거래가 있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토론회도 있었다.

23일에 진행된 폐막식은 우수한 제품들을 출품한 단위들에 상장이 수여되였다.

은 조선로동당의 사랑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고록 경영활동을 짜고치고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군민통천대지공장 새로 건설

평안북도에서 군민통천대지공장을 새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진 공장에는 돼지우리들과 먹이, 고기가공실, 유기질복합비료공장 등의 생산건물과 보조

건물들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 돼지공장이 건설됨으로써 군인들과 도안의 인민들에게 많은 고기를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단행하신 최전방 섬방어대시설에 걸친 최포병대가 최근 감히 허튼 악담들을 함부로 꿰쳐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였다.

미제와 괴뢰적폐당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단행하신 서남전선 최남단 최전방섬방어의 섬방어대들에 대한 시찰은 지금 남조선과 전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척의 적진을 굽어보시며 적들이 감히 서운 불질을 한다면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섬멸적대공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데

해 내리신 명령은 천췌평장의 기상과 당력, 용맹을 과시한 무적필승의 선언이며 천췌진원수들에게 무서운 첩추를 내리는 일대 퇴성이다.

이날 전시회개막과 관련한 연회는 23일 조선중앙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였다.

미제와 괴뢰적폐당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단행하신 서남전선 최남단 최전방섬방어의 섬방어대들에 대한 시찰은 지금 남조선과 전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척의 적진을 굽어보시며 적들이 감히 서운 불질을 한다면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섬멸적대공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데

쟁의 위기에 몰아넣은 미제와 괴뢰적폐들은 지금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괴뢰대검미치광이들과 군부적폐들, 보수털거지들이 감히 우리에게 대해 그 무슨 《도발자》이니, 《진전선동》이니 튀니 하며 무엄하게 지껄어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추상같은 기상과 천만군민의 열렬적 기세에 혼비백산한자들의 무분별한 망둥이고 괴해망상증으로 인한 단말마적 발악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끝내 강행하여 이 땅에 핵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역적대당이 감히 그 누구의 《도발》과 《긴장조성》을 떠벌

이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온 민족과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더우기 그 무슨 《내부결속》이니, 《과시용》이니, 《선전선동》이니 하는것이야말로 우리의 불패의 일심단결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모독하고 저들의 무지와 아둔을 드러내는 비렬한 망발이다.

괴뢰대당이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교약한 망발을 꿰치고있는것은 이번 섬방어대 현지시찰의 파문과 총격을 조공이라도 약화시키고 저들의 혼란을 막아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저들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정당화하며 날로 심화되고있는 대내외적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가스로운 술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너절한 놀음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 호전광으로서의 정체를 가리

우고 여론을 오도하며 과벌의 위기에 빠뜨려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령장의 천췌명령을 피복는 심장에 받아안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결전태세에 진입하였다.

적적폐당이 비렬한 악담질을 해뎠을수록 대결광신자들을 모조리 쳐 없애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는 더 강화될것이다.

우리는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대로 미제와 괴뢰적폐당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과도발책동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다는것을 침략자, 도발자들은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는 리명박역도의 《8.15경축사》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자화자찬》, 《궁지에 빠진자의 마지막방광》, 《특별한 대부제안도 없는 무미한 객담》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용담한 평가이다.

리명박이 임기전기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며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것밖에 없다. 그 가 민심의 버림과 규탄을 받고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립종의 시각에 처한것은 대결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전쟁공포만을 들

어려운 원인이 있다.

이런자가 자기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죄행에 대해 반성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미한 객담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리명박이 임기전기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며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것밖에 없다. 그 가 민심의 버림과 규탄을 받고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립종의 시각에 처한것은 대결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전쟁공포만을 들

어려운 원인이 있다.

이런자가 자기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죄행에 대해 반성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미한 객담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리명박이 임기전기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며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것밖에 없다. 그 가 민심의 버림과 규탄을 받고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립종의 시각에 처한것은 대결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전쟁공포만을 들

어려운 원인이 있다.

이런자가 자기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죄행에 대해 반성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미한 객담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리명박이 임기전기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며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것밖에 없다. 그 가 민심의 버림과 규탄을 받고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립종의 시각에 처한것은 대결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전쟁공포만을 들

어려운 원인이 있다.

이런자가 자기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죄행에 대해 반성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미한 객담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리명박이 임기전기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며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것밖에 없다. 그 가 민심의 버림과 규탄을 받고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립종의 시각에 처한것은 대결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전쟁공포만을 들

궁지에 빠진자의 구차한 변명

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마치 효과가 있는듯이 떠들며 《통일(한국)이야말로 더 큰 도약대》라느니 튀니 한것은 과령치성의 극치로서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집권말기에 와서까지 쓰레기에 불과한 《대북정책》

특히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역도가 그 무슨 《변화》요, 《통일》이요 하면서 《세계통일》야망을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이다.

리명박보수패당은 집권기간 이른바 《원칙고수》와 《상생, 공영》에 대대리면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

폭로된 남조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특대형테러음모는 그들의 체제통일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과 야합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것도 조선반도에서 북침전쟁의 불길을 일으키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따면 북침전쟁나발을 불어대는자들이 뻥뻥스럽게 《대화의 문》이니, 《협력할 준비》니, 《평화통일》이니 하며 내외여론을 우롱하지만 그것은 궁지에 빠진자의 구차한 꾀변에 불과하다.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제명을 다 산 정치총장-리명박을 받기는것은 까마귀들의 《까옥》소리뿐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구호가 기발처럼 펼쳐이고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오르며 하고 더 밝고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오기 위해 용기백배하여 내달리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는 신념의 이 구호, 이 구호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던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의 지난 태양절정축 열병식연설에서였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 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인도해 줄 것임이 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드넓은 광장을 저렁저렁 울리는 마지막 한마디 연설문구에 온 광장은 더 큰

회화와 기쁨으로 설레이고 군중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은 삼천리에 메아리쳤다.

연설이후 사람들속에서는 이 표현이 급속히 퍼졌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나 이 말을 즐겨했다.

한마디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는 김정일수령님의 유행어로 되었다. 얼마전에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나왔다.

하다면 사람들은 왜 이 말을 즐겨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말에 모두의 희망찬 미래가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앞날의 우리 조국의 모습, 행복 넘친 모두의 생활이 비껴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승리》란 다른 어떤 강성국가건실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에 대해 이미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음이 사는

고 한여름의 피약별도, 강바람이 모래와 먼지를 휘뿌리는 것도 아름답지 않게 보이고 당당할 줄 모르는 공화국은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위업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된다는 고전적정신화를 주시었다. 강성국가 건설의 명확한 지름길을 밝힌 웅대한 전략적로선의 천명이라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선언하시었다.

그 결심을 실천하시려고, 인민들을 하루빨리 부귀영화의 보금자리로 앉히시려

공화국이 내세우는 구호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비껴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절세위인가문의 지론이다. 위인가문의 넋을 체현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자신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다.

인민을 하늘로 여긴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은 두 세국주의를 타승한 력사의 기적을 안아왔고 인민의 지상락원인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90년 정초에 제시하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자신

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그의 헌신적복무정신이 담겨있다.

인민의 총복으로 한생을 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사랑속에 공화국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핵무기보다도 강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이는 올해 1월 1일 새해공동서약에 제시된 구호이다.

이 구호와 함께 지금 공화국에서는 온 나라에 인민의 리익과 편리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애국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표현은 소박하지만 여기에는 인민의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더욱더 강성부흥한 공화국의 매일이 비껴있다.



모란봉악단의 매혹적인 선물이 웨치는것은...

최근 사람들속에서 제일 인기를 끄는 공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대뜸 모란봉악단의 공연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모란봉악단은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한두번의 공연으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말 멋진 공연이다.》, 《음악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매혹적인 공연이다.》, 《새롭고 기백이 넘치는 최고의 예술을 보았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세계적인 악단이 있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준것은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거둔 큰 성과의 하나일 것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7월초의 시범공연과 전승절인 7.27을 맞으며 진행된 공연.

그때마다 공연이 던진 파문은 컸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서 일어설 줄 몰랐다. 연주자들의 세련되고 능란한 연주 솜씨, 공연 전과정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연주의

바동감, 황홀하면서도 리채적인 무대배경과 조명...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2시간이나 진행되었지만 전혀 시간가는줄 모르고 자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비결은 약동하는 조곡과 시대의 순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성적 요구에 꼭 들어맞는 공연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진취적이고 힘있고 약동하는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맥박이 높뛰는 공연이었고 박력있고 살아 숨쉬는 공연이었다.

모란봉악단의 연주수준은 가히 세계적수준이었다. 바이올린수 4명, 비호하여 불과 11명의 연주자들이 웅군 하나의 대관현악단이 내는 음악적소리의 효과를 다 냈다. 연주수준이 보통정도여서선 생각도 할 수 없는 황홀한 연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악장인 선우향회의 바이올린연주 솜씨는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께서 정말 잘신다고 평가해주시는 정도로 대단하였다.

편곡, 악기들의 편성도 특색있고 새로웠다. 모란봉악

나 왕채산경음악단과 같이 새 세기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얼굴과 개성이 뚜렷한 악단을 친히 조직해주셨었다.

모란봉악단이 오늘과 같이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요소들을 기성관태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음악 예술의 천재이신 정력적인 김정일수령님의 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인 것이다.

모란봉악단의 출현과 공연은 단지 예술에서의 혁신만을 뜻하는것이 아니다. 생신하고 맥박이 높뛰는 악단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건동은 계승하면서 부단히 새롭게 사고하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강렬하게 호소하고있다.

받은 자기 땅에 불이고 눈을 세계를 보며 혁신적인 사고와 일본새로 하루빨리 세계를 따라잡으려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드세한 담력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전반에 살아 맥박치고있다.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인민적보건의제도의 시책속에 크나큰 혜택을 받아안으며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제도 공화국에는 가는 곳마다 근로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일탁아소가 있다. 그리고 기차, 교원, 연구사, 의사 등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일이 바쁜 여성들과 자식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여성들을 위한 주육아소, 주유치원이 곳곳에 있다. 어머니를 잃었거나 어머니가 장기질병으로 앓는 어린이들은 육아원에서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어린이들이 70명 이상 되는 탁아소에는 아동병동과 의사가 있으며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질병상태의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물론 치료식사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8, 9월 탁아소, 유치원직원들간이 제정되며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 전국차적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은 평양아동백화점 실내놀이터

나 왕채산경음악단과 같이 새 세기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얼굴과 개성이 뚜렷한 악단을 친히 조직해주셨었다.

모란봉악단이 오늘과 같이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요소들을 기성관태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음악 예술의 천재이신 정력적인 김정일수령님의 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인 것이다.

모란봉악단의 출현과 공연은 단지 예술에서의 혁신만을 뜻하는것이 아니다. 생신하고 맥박이 높뛰는 악단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건동은 계승하면서 부단히 새롭게 사고하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강렬하게 호소하고있다.

받은 자기 땅에 불이고 눈을 세계를 보며 혁신적인 사고와 일본새로 하루빨리 세계를 따라잡으려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드세한 담력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전반에 살아 맥박치고있다.

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미풍만을 보아온 나는 한강도아래 펼쳐진 너무도 판이한 현실에 입을 딱 벌리고말았다. 그날따라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치료비라는 말조차 모르니 마음껏 치료를 받는 어머니 조국의 품이 눈물이 나도록 조꼈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병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치료비를 높이 정하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남조선에서 의술이 인술이 아니라 《돈술》로 변한지 오래다. 그날 나는 꺼져가는 생명을 앞에 놓고 환자의 주머니부터 뒤지는 매정한 남조선사회에 그 어떤 미련을 품었던 자신을 끌어잡아 버렸다.

사람들사이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병나면 치료해주는것은 인간의 료덕도덕이다. 그러나 폐물매매의 남조선사회에서 이런 초보적인 료리의 색조차 바랄수 없다. 사람들은 오직 돈에만 미쳐 돌아가고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형제나 친척, 친구 등을 상대로 꺼림없이

인민의 기쁨 넘치는 마전유원지

동해의 명승 마전유원지의 해수욕장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고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마전유원지관리소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유원지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답게 더 잘 꾸렸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한 품에 뜨겁게 안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민의 뜻을 활짝 꽃피워갈 일념으로 유원지의 곳곳을 일신시켰다.

지대적특성에 맞게 사와

장외 2종물공급체계를 세워놓았으며 백사장의 해가림대들을 특색있게 설치하였다.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구명대와 위생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

보트장에 대한 준침공사, 호안정리, 석축, 미장작업 등을 립체전으로 벌려 유원지의 주변정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속에 해수욕장을 찾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마전유원지는 런일 북미고있다.

내가 본 특과 남

짧지 않은 내 한생에 요즘 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적은 없는것 같다. 사람 못살 세상을 박차고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어머니라고 하고마다 꽃다발을 안겨주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나서면 또꽃사람들속에 예뻐싸인다.

꽃다발은 음식이 생겨도 남편이 권하는 동네사람들의 인제는 얼마나 살뻐할것인가. 며칠전에는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 찾아와 내 손목을 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고 따뜻이 위로해줄 때 절로 눈물이 났다. 한집안식솔처럼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니 인정이 메마른 가시밭을 울고울며 헤쳐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남쪽에서의 6년세월 언제 한번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나 동정의 눈빛조차 받아본적이 없는 나였다.

그 나날 뼈저리게 절감한것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화목과 따뜻한 정이란 괴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인정의 사막지대라는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탈북자》들이 잘 몰라 물어보면 배워줄 대신 조롱하고 쓸모없다며 해괴시켜버리는것이 남조선실정이다. 《탈북자》들은 병에 걸려 열달동안 집안에 불박혀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고독하고 쓸쓸하기 그지

법칙을 저지르고있다. TV를 켜도 《금세세공방주인에게 약탈은 술을 먹고 금품을 털어갔다.》느니,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느니, 《아버지를 법정에서 불러내어 땅과 재산을 빼앗았다.》느니, 《애인을 목 졸라 죽이고 사망보통금을 타먹었다.》느니 하는 따위 뿐이어서 머리가 멍하여도 꺼버릴 매가 많았다.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애는 아이들을 말아 키우고 영예로운인민의 길동무가 되어 위해주는 뜨거운 동지적 리리와 고결한 인간애가 차넘치는 우리 공화국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환물을 내대어 위험에 처한 동지들을 구원한 금품의 반대선영웅과 연백별의 리창선영웅, 물에 빠져 나락생들을 목숨바쳐 구원한 림산군의 9살 남 소년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미담들이 무수히 꽃피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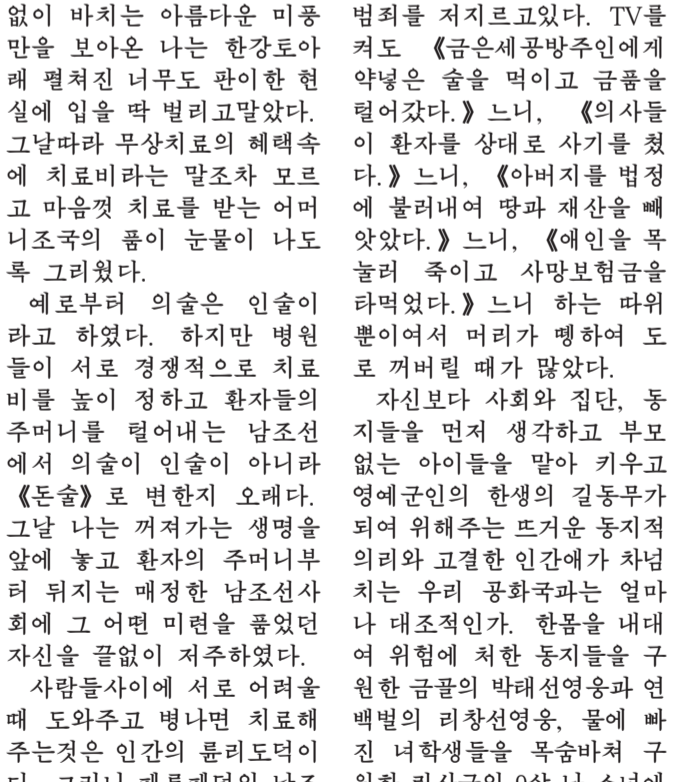
서로 다른 두 제도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심장속에 철기로 새겨안은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고결한 인간애가 날을 따라 꽃피어나는 인간사랑의 화원이란 남조선이야말로 인정도 량심도 도덕도 다 말라버린 간생지옥이라는것이이다.

내가 본 특과 남

한 사회의 수난자로 되고있을뿐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의술도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두려온 곳이 어디인가고 물으면 한결같이 병원이라고 대답한다. 환곳은 치료비가 너무 비싸 보통사람들은 병이 나면 곧 죽어야 하기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내가 기관지 천식발작으로 숨이 막혀 한 밤중에 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당장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놓고 비호자부터 데리고 하면서 치료를 거절했다. 내가 죽으면 비호자에게서 치료비부터 받아낼 타산에서였다. 공화국에 있을 때 병이 날새라 의사가 찾아오고 종래에 빠진 환자를 위해 의료일꾼들이 배와 살, 피를 아끼



인민병원들과 웃음이하고있는 박정숙녀성(가운데)

박정숙

(다음호에 계속)

